



초계주보

- 발행인 || 주임신부 박영진 베드로 □ 본당수녀 윤 에델투르다.이 막달라 □ 본당회장 김재호 바오로
- 발행처 || 630-85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15. 천주교마산교구 호계성당
- 홈페이지 <http://hg.cathms.kr> ☎ 055)231-1088(사제관) □ 231-4474(수녀원) □ 231-1122(사무실)



토막 교리상식

“주님 공현 대축일”

1. 의의 : 공현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 등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아기 예수가 세 명의 동방 박사(파스칼, 멜키오르, 발타사르)에 의해,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기념한다.

2. 축일 : 이 축일은 3세기경 동방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가나 혼인 잔치의 첫 기적과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도 함께 기념하였다. 그 후 4세기경에는 서방 교회에 전해져 동방 박사의 조배만을 기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축일은 1월 6일로 정했으나, 의무적 대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축일을 지낸다. 세 명의 박사(현인 혹은 왕)는 별에 의하여 아기 예수(유다인의 왕)가 탄생한 곳으로 인도되었다(마태 2, 7-8). 그리고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데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유향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몰약은 참사람이심을 상징한다.

이 축일은 전례상 성탄과 같은 대축일이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민족에게 자신의 강생을 보여주었으나, 공현은 세상 끝까지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었다. 모든 동방 교회에서는 4세기까지는 성탄 축일도 이날에 지낼 정도로 대단히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그리고 세례와 관련하여 물을 축성하고 이날에 예식을 행하였다.



이 주일의 성가

입당성가	예물준비성가	성체 성가	파견성가
487	332, 221	180, 163	487

